

재무설계, 행복한 미래를 여는 현명한 선택 **CFP®** 놀라운 내일을 설계하는 **AFPK®**

	<b>보 도 자 료</b>		
	보도일	2024.1.22.(월)	
	배포일	2024.1.22.(월)	
서울시 마포구 큰우물로 75 성지빌딩 17층 한국FPSB 김지옥 팀장 / 02-3276-7612, <a href="mailto:jwkim@fpsbkorea.org">jwkim@fpsbkorea.org</a> <a href="mailto:gio0703@gmail.com">gio0703@gmail.com</a>			

### 제목: 한국FPSB, 경기도 및 6대 광역시 청년이라면 재무상담 지원

-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함께하는 금융어드바이저서비스로 지방에도 재무상담 서비스 가능
- 한국FPSB가 서울영테크에 이어 운영을 맡아 CFP 및 AFPK 자격자가 재무상담가로 활동 예정



- 한국FPSB는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함께하는 「소비자 맞춤형 금융어드바이저 서비스」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, 재무상담을 받을 청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.
- 2030 청년의 맞춤형 재무상담을 무료로 지원하는 본 사업은 경기도 및 6대 광역시 청년(만 19~39세)이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. 선착순 2000명을 대상으로 하며, 금융어드바이저 서비스 홈페이지(<https://kfifadv.org/>)에서 온라인

으로 접수한다.

- 재무상담 분야는 소득지출관리, 투자상담, 금융상품분석, 재무진단, 신용부채 관리, 장기재무목표 등 재무관련 전반적인 주제를 모두 다루며, 대면과 비대면을 선택해서 총 2회까지만 상담이 가능하다.
- 한국FPSB는 작년과 재작년에 서울 영테크 사업의 전문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서울시 거주 만 19~39세 청년들에게 맞춤형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을 제공하였는데, 피상담자의 98%가 만족하는 등 재무상담의 효과성을 입증한 바 있다.
- 서울 외의 지방에서도 재무상담 수요가 많았는데, 이번 금융어드바이저 서비스 사업으로 지방에서도 올바른 금융태도 형성과 장기적 재무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재무상담을 서울과 같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.
- 한국FPSB는 지난해 12월 금융산업공익재단과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으며, 서울 영테크 때와 같이 전문성과 윤리성을 겸비한 국제재무설계사인 CFP와 재무설계사인 AFPK자격자를 전문 재무상담사로 모집하였다.
- 300여명의 CFP 및 AFPK자격자가 재무상담사로 신청하였고, 한국FPSB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총 45명(CFP 25명과 AFPK 20명)을 선발했다. 선발된 상담사는 실무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상담 신청자가 매칭되면 본격적인 재무상담이 진행된다.
- 한편, 올해 첫 번째 시험인 제 87회 AFPK자격시험이 3월 16일 시행 예정인데, 원서는 다음달 19일부터 한국FPSB 홈페이지에서 접수 받는다.

끝.